일 주 문



봉은사 자비의 김장나누기

원명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12월 9일 봉은사 경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자비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문화예술대상 공로상

범혜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스님은 12월 4일 '제8회 한국문화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한국문화예술대상 불교발전 공로상을 수상했다.



제천 정각원 대중포교

보봉 정인성 제2작전사령부 호국무열사 주지 군승법사는 12월 21일 전역 후 충북 제천 정각원에서 대중포교에 나선다.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원용선 남양이앤씨 회장은 12월 14일 서울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리는 '동국인의 밤'에서 동국인상 대상을 수상한다.



대한불자가수회 창립27주년 법회

김국환 대한불자가수회장은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창립 27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소년원서 펼쳐진 자비의 짜장공양



'운천 스님의 짜장면 나눔과 자비명상 마가 스님 특강'이 12월 7일 고봉중·고등학교(서울 소년원)에서 전교생 2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자비명상과 통일짜장, 불교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가 준비하여 주관했다.

특히 고봉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운천 스님과 30여 봉사자가 준비한 짜장면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마가 스님으로부터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인성교육 강연을 접했다.

아울러 '그래도 YES 예술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요술당나귀 라마와 싱어송라이터 김경미, 한국무용전문가 이정민의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마가 스님은 특강에서 청소년들에게 "주인공은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고 엑스트라는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질러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말했다.

운천 스님은 "짜장면은 어머니 마음이다. 힘들어도 견뎌내는 멋진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 국가경쟁력의 하나죠"

Interview

'2017 대한민국인재상' 수상한 김아나 씨

2015년 스타트업 '무아' 설립
만다라 활용 '마인드래치' 개발
"불교문화 확산에 기여할 터"

불교계 청년스타트업 '무아(MUA)'를 설립해 운영 중인 동국대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김아나 씨가 11월 30일 서울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아나 씨는 2015년부터 '무아(MUA)'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지식을 토대로 한국전통문화체험상품 '마인드래치'를 개발했다.

김 씨는 12월 7일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 씨가 개발한 '마인드래치'는 마인드(Mind)와 스크래치(Scratch) 합성어로 무아의 대표 미술심리치료 제품이다.

전통문양인 칠보, 만다라를 직접 긁어 현대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김 씨는 직접 만다라를 그리면서 심리치료까지 가능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한국 문화재 대부분이 불교 문화재인 상황입니다. 한옥과 사찰, 한복과 불교제사 등 전통문화와 불교는 접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 문화 콘텐츠가 이미 많은 기독교와 달리 불교는 콘텐츠가 없었어요."

김아나 씨는 SK청년비상프로젝트 은상, 태국 방콕 국제 발명전시회 금상, 중기부 창업선도대학 아이템사업화지원사업 선정 등 한국경제를 이끌 차세대 청년 창업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김아나 씨는 청년창업가로서의 삶과 경험을 주제로 제작한 UCC로 '스타트업 취업인식 개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창업문화 확산에도 힘써왔다.

그 이면에는 깊은 불심이 있었다. 대학교 1학년부터 어린이법회 간사로 활동해 온 김아나 씨는 현재도 군법당에서 불화 강의와 국군장병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아나 씨는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불교를 포함한 전통문화는 하나의 국가경쟁력이라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또한 꾸준히 관광객의 수가 늘면서 전통문화콘텐츠의 개발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전통문화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자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라 판단하고 근본적인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문화교육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녀노소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것으로 우리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향후 다양한 종류의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을 양성하고, 전통문화교육과 더불어 관련전공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셜벤처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중 행복 위해 더 큰 원력 다지자"

조계종 포교원
제29회 포교대상 시상식 개최

정우 스님·故윤용숙 보살 수상 영예
"불교로 세상 밝힐 것" 수상소감
지홍 스님 "불교성장 동력 작용"



제29회 포교대상을 수상한 이들과 조계종 스님들이 불법홍포의 원력을 다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29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포교부장 가섭 스님 등 스님들과 윤기중 포교사단장, 정연만 중앙신도회 부회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등 4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추울수록 따뜻함이, 어두울수록 밝음이 더욱 요구된다. 따뜻함이 필요하고 밝음이 요구되는 삶의 현장에서 정진하셨던 분들을 모셔서 축하하는 자리"라며 "포교대상을 수상한 정우 스님, 故윤영숙 보살 등 많은 이들의 전법보살행은 더 많은 이들을 전법 현장으로 인도 할 것이다. 이들 모두의 신심과 원력은 우리 불교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이 국토를 아름답게 장엄할 것"이라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대상은 조계종 총무부장이자 前 조계종 군종교구장을 지낸 정우 스님과 불이회를 창립한 故윤용숙 보살이 수상했다.

정우 스님은 "고맙습니다. 늘 항상…"이라며 북받치는 감정에 말문을 잇지 못했다. 구룡사 신도 등의 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님은 "고맙습니다"라고 다시 인사하고 짧게 수상 소감을 마쳤다.

故윤용숙 보살의 남편인 류홍우 보덕학회장의 수상소감은 감동을 더했다. 류 학회장은 "故윤용숙 보살은 입적하기 한 달 전에도 보현행원을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우리 가족 모두 불교계의 잊지 않음을 기억하고 불교로 사회를 밝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호국 장영사, 수계법회 봉행



전북지역의 군법당 중 가장 모범적인 법당으로 평가받는 임실 제6탄약창(창장 배희관) 호국 장영사가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호국 장영사(지도법사 이성강)는 12월 3일 前포교원장 도영 스님, 강석춘·강철기·문병현 포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와 위문공연을 펼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불교기자협회, 불기협의 밤

본지 노덕현 차장 대상·김주일 국장 근속상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는 12월 4일 서울 르메이에르 5층 더부페서 '2017 불교기자상 시상 및 한국불교기자협회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본지 노덕현 차장은 특별기획 '이제 Z세대 포교다'로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을, 김주일 편집국장은 2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본지 노덕현 차장은 시상식에서 "편집국 선후배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고, 오늘의 영광을 안게 됐다"며 "다음에는 후배들을 지도해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일산병원 연우회, 김장 나눔



동국대학교일산병원(병원장 이진호) 교직원 연우회는 12월 1일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10여 명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연우회원 및 기타 일산지역 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해, 1000여 포기의 배추에 양념재료 섞기부터 버무리고 포장까지 정성 가득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전달됐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12월 29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